

정무사장, 대학타운 기획·건설 실무그룹 대표단과 함께 한국 방문

홍콩 정무사장은 북부도회구 개발위원회 산하 대학타운 기획·건설 실무그룹 대표단을 이끌고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대표단은 세종, 대전, 서울, 인천을 찾아 대학타운 개발 모델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향후 '북부도회구 대학타운(NMUT)'의 설계 및 조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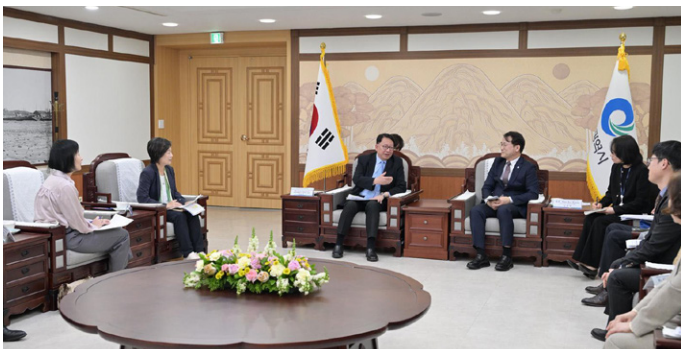
대표단은 서울 일정으로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재단 및 한국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그리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학타운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무사장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북부도회구 대학타운을 교육 및 혁신기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한 정무사장(앞줄 가운데), 교육장관(앞줄 우측 네 번째) 및 대표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한 정무사장(좌측부터 두 번째), 교육장관(우측부터 세 번째) 및 대표단



신재경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중앙 우측)과 면담



세종 공동캠퍼스를 방문해 캠퍼스 운영 및 기획 현황에 대한 브리핑 청취

정부,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첫 경제개발계획 올해 내 발표



3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연례회의 개막식, 존 리 행정수반(두 번째 줄 중앙)이 참석한 모습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국의 국가 '제15차 5개년 계획'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 계획은 홍콩이 중국의 국제교류 창구로서 더욱 유기적으로 함께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F, 홍콩의 경제 회복과 금융 견고성 높이 평가

국제통화기금(IMF) 홍콩 방문단은 5월 중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술 관련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민간 수요의 개선, 그리고 금융시장 활동의 반등에 힘입어 홍콩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 방문단은 또한 홍콩이 국제 금융 중심지이자 '슈퍼 커넥터(Super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홍콩은 세계적인 자금조달 허브이자 선도적인 역외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도회구(Northern Metropolis) 개발을 포함한 각종 정책 구상들이 홍콩 내 혁신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 1분기 홍콩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외 무역의 지속적인 호조와 내수 진작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

기 대비 5.9% 성장하며 전분기의 4.0% 성장세를 웃돌았다.

한편, 홍콩은 2025년 상품 교역 기준 세계 5위 무역경제권으로 올라섰다. 이는 2024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순위로,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콩 경제가 보여준 강인한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

홍콩, 22개 신규 전략기업 유치하며 730억 홍콩달러 투자 확보

세계 10위 및 20위권 내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22개의 주요 전략기업들이 생명·보건 기술,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 범용인공지능(AI), 스마트 모빌리티 등 핵심 분야에서 홍콩의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했다.

홍콩 전략기업유치실(OASES)은 현재까지 120개 이상의 전략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730억 홍콩달러에 달하며, 향후 수년간 첨단 연구개발(R&D) 및 경영 관리 분야에서 약 2만 5천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OASES 기업 협약식(4월 20일)에 참석한 폴 찬 재무장관

신규자본투자유치제도, 높은 참여도로 홍콩의 자산 관리 허브 위상 강화



2024년 3월 도입된 '신규자본투자유치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를 통해 전 세계 고액자산가들과 자본이 꾸준히 홍콩으로 유입되고 있다.

벤스 콕 입경처장과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이 신규자본투자 유치제도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월 28일 기준, 홍콩투자청은 약 3,200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예상 투자 규모는 약 950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은 세계적인 자산관리 중심지로서 홍콩이 가진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판링 우회도로 동부 구간 개통, 북부도회구 첫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완공

지난 5월 2일 판링 우회도로(동부 구간)의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이로써 북부도회구 개발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도로는 홍콩 북구(North District)의 교통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북부도회구 개발을 위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인프라 선도형 개발'과 '도농 통합' 전략을 반영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도로망을 개선하고 향후 인구 유입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링 우회도로 동부 구간은 총 연장 약 4km의 왕복 4차로이며, 일반도로 구간과 지하차도, 고가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석자들이 버스를 타고 판링 우회도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홍콩-동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가치사슬 구축 위한 협력 추진



에코세레스 공동의장 앨런 찬과 동관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동관시 인민정부 상무부시장인 쟈젠펑이 양해각서(MOU)에 서명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동관시 정부는 에코세레스(EcoCeres)와 협력해 대만구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녹색 발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SAF는 기존 항공연료에 비해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 보다 친환경적인 항공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력은 특히 홍콩과 동관시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국제 금융, 전문 서비스 및 연구 역량을 제공하는 반면, 동관시는 성숙한 화학산업 기반, 물류 지원, 그리고 SAF 생산의 핵심 원료인 폐식용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한다.

홍콩에서 육성된 기업인 에코세레스는 폐식용유를 국제 인증 SAF로 전환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홍콩·마카오, 민간항공 협력 강화 위한 신규 합의 체결

중국 민용항공국, 홍콩 민간항공부, 마카오 민간항공국은 4월 30일 홍콩 본부에서 4건의 신규 합의를 체결했다.

체결된 합의는 항공기 기종 증명의 상호인정, C929 항공기 인증, 공동 정비 관리, 그리고 항공연료 및 화학물질의 감항성(airworthiness)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수년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 항공 기관은 감항성 인증, 정비 및 훈련 기관, 그리고 정비 면허에 대한 상호인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 이번 신규 합의를 통해 협력 범위는 항공기 인증, 항공 연료 및 화학제품 인증, 그리고 해외 정비 및 훈련 기관의 승인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홍콩과 보르도, 와인·미식 관광 협력 강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홍콩관광청과 보르도 와인산업협회 간의 와인·미식 관광 홍보 업무협약(MOU) 체결식

문화체육관광국 및 홍콩 관광청 소속 고위 관계자들은 프랑스 보르도를 방문해 홍콩관광청과 보르도 와인산업협회(Conseil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Bordeaux, CIVB) 간 와인 및 미식 관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보르도 당국 및 CIVB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홍콩과 프랑스 간 문화 및 미식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홍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관광 및 예술, 와인·미식 문화의 아시아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트바젤 홍콩 성황리에 마무리, 신규 5개년 파트너십 발표

아시아 최대의 미술 축제 '아트 바젤 홍콩'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9만 1천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글로벌 미술계의 아시아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올해 행사를 통해 아트 바젤과 홍콩 문화체육관광국은 홍콩의 국제 미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5개년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한편, 제11회 '아트 센트럴(Art Central)' 역시 관람객 4만여 명을 동원하며,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17개 갤러리와 5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2015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트 바젤 홍콩 2026' 개막식(3월 25일)에 참석한 로잔나 로 홍콩 문화체육관광국 장관(중앙)

홍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세계 지위 4년 연속 유지

유네스코는 홍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재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4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콩 지질공원은 2009년 중국 국가급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공식화한 이

후로 '홍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네스코 지침에 따르면 모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기관이 정한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년마다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인천 및 서울 방문

질리안 람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방한 일정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수석대표는 외교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하여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지역 발전 동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및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

지역 사무소 방문도 일정에 포함되었다.

방한 기간 중에는 두 차례의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먼저 3월 26일에는 홍콩무역발전국, 홍콩투자청, 한·홍콩 비즈니스 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한-홍콩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해 ETE 플랫폼을 통해 홍콩의 우수한 비즈니스 여건과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어 3월 27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홍콩예술행정협회(HKAAA) 대표단을 위해 서울에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홍콩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의 면담



홍콩무역발전국, 홍콩투자청, 한·홍콩 비즈니스 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한-홍콩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3월 26일)



홍콩예술행정협회(HKAAA)와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3월 27일)

현대자동차그룹 등 9개 업계 선도기업, 홍콩 친환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분야 MOU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한국, 중국, 프랑스, 홍콩의 9개 기업이 홍콩 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기업은 지난 5월 18일 열린 '2026년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수소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홍콩의 친환경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오는 2030년 말까지 홍콩 내 자급자족형 수소 생태계를 완비하고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립지 가스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폐기물 수소화(Waste-to-Hydrogen)'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시범 운영과 맞춤형 수소 상용차(관광버스, 공항 셔틀버스 등)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6년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개막식 (5월 18일)

홍콩 출신 탐재체 전문가, 최초로 '선저우 23호' 유인우주선 참여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예정대로 로켓과 분리된 뒤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존 리 행정수반은 홍콩 출신 최초로 유인 우주 임무에 참여한 탐재체 전문가 라이카잉 박사를 포함한 승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행정수반은 이번 임무가 국가 제15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첫 유인우주비행 임무이자 홍콩 대표를 포함한 첫 번째 임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하며, 이 성과가 모든 홍콩 시민들을 자랑스럽게 했다고 덧붙였다.



'선저우 23호' 유인우주선에 참여한 라이카잉 박사 (좌측 첫 번째)

홍콩, 2026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아시아 미식 수도로 부상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세계 50대 최고의 바(The World's 50 Best Bars)' 시상식 개최에 이어, 홍콩 관광청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을 홍콩에서 개최했다.

현지 대표 광둥요리 레스토랑 더 체어맨(The Chairman)와 현대 광둥요리 레스토랑 Wing(Wing)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내 6개 레스토랑이 상위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

아에서 홍콩 외식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지 대표 광둥요리 레스토랑 더 체어맨(The Chairman)이 1위를 차지



레스토랑 더 체어맨(The Chairman)

홍콩, 공공장소 내 특정 대체흡연제품 소지 금지 시행

2025년 담배규제법(개정) 조례에 따른 새로운 규정이 4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체흡연제품을 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금지 대상에는 전자담배 캡슐,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히트 스틱, 허브 담배 등이 포함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행객을 포함한 적발자에게 3천 홍콩달러의 고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

며, 소지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세븐스, 50주년 대회 역대 최다 관중 기록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0회 홍콩 세븐스 대회에는 11만3천 명 이상의 관중이 찾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럭비 세븐스 국가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35대 7로

꺾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뉴질랜드가 호주를 19대 14로 제압하며 5회 연속 대회 우승과 홍콩 세븐스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한편, 홍콩 중국 남자 럭비 세븐스 대표팀은 일본을 19대 15로 물리치고 멜로즈 클레이모

어스 타이틀 3연패를 기록했다.

홍콩 세븐스는 지역 스포츠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제 스포츠 행사 수도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SPOTLIGHT HONG KONG



제15회 Nations' Cup 요트대회

홍콩에서 열린 제15회 Nations' Cup 요트대회에는 1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65개 팀이 참가했다. 행사의 전통을 이어 참가 선수들은 각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자국을 상징하는 색상과 의상을 착용한 채 빅토리아 하버를 누비며 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프랑스 팀이 네이션스컵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국가로 선정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kgreet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kgreetskorea/

이메일: seoul_enquiry@hketoty.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gov.hk/korea